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단체줄넘기 · 연날리기

단체줄넘기 영북면 1등 · 신북면 2등

양평 연 보존회에서 연날리기 시범경기 · 이동면에서도 시범보여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단체줄넘기는 7개 팀이 참가해 대회를 실시했다. 단체줄넘기는 말 그대로 단체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경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기다.

이번 대회는 신북면과 관인면, 소흘읍, 창수면, 화현면, 영북면, 포천동 등이 참가해 경기를 펼쳤다.

신북면과 관인면이 경기를 실시한 결과 신북면이 31회를 넘어 승리했으며 소흘읍과 창수면의 경기는 창수면이 가관하여 소흘읍의 승리로 돌아갔고 화현면과 영북면의 경기는 영북면이 2회를 넘어 승리했다.

다음 경기로 소흘읍과 신북면이 맞붙어 신북면이 21회를 넘어 18회를 넘은 소흘읍을 제치고 승리했고 영북면과 포천동이 경기를 실시해 영북면이 2회를 넘어 결승에 올라갔다.

신북면과 영북면이 결승에서 만나 단체줄넘기를 실시한 결과 신북면은 한번도 넘지 못하고 영북면은 2회를 넘어 승리해 1등을 차지했다.

한편, 3.4위 전에서는 소흘읍과 포천동이 맞붙어 포천동이 25회를 넘어 3위를 차지하고 소흘읍이 23회를 넘어 4위를 차지했다.

단체줄넘기는 맨 먼저 한 사람이 뛰어넘기 시작하면 곧이어 하나씩 계속 들어가 나중에는 줄 길이에 알맞은 인원이 함께 뛰어넘게 되는데, 이때 뛰어넘기에 맞춰 노래를 합창하거나 뛰어 넘으면서 방향을 바꾸는 등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이같은 경기의 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아쉽게 경기가 마무리 되기도 했다. 호흡이 길게 갔던 것은 첫 번째 경기인 신북면과 관인면 경기에서 신북면이 31회를 넘은 것으로 기록됐다.

연날리기는 시범경기로 양평 연 보존회에 부탁하여 행사에 걸 맞는 연날리기 시범을 보이게 했다. 그리고 이동면에서 독특한 연날리기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진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양평연보존회 김창석 부회장이 포천민속경기대회를 경축하기 위한 대형 연을 날리고 있다.



양평연보존회는 이번 연날리기 시범 행사에서 200개의 연을 하늘에 띄워 포천시민의 무사와 안녕을 기원했다.



단체줄넘기에 참가한 선단동 선수들이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요원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포천동 단체줄넘기 선수들은 3·4위 전에서 소흘읍을 제치고 25회를 넘어 3위를 차지했다.



영북면 단체줄넘기 선수들이 우승을 확정지은 후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제2회 포천민속경기대회 학생시범경기

줄다리기 송우초 1등 · 추산초 2등

단체줄넘기 왕방초등학교 · 송우초등학교 공동 1등

이번 대회는 학생시범경기도 실시했다. 포천에서 포천초등학교(교장 최규필)와 왕방초등학교(교장 한무송)가 시범학교로 출전했고 소흘읍에서 송우초등학교(교장 조상기)와 추산초등학교(교장 홍삼선)가 참가했다.

학생시범경기는 줄다리기 30명과 단체줄넘기 10명 등 모두 40명이 출전했으며 대회 주최측에서 각 학교에 버스를 보내 시범경기에 참석을 돕기도 했다.

학생들의 줄다리기와 단체줄넘기를 통해 상호협동심을 길러주고 민속경기대회장을 둘러보면서 포천의 민속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시범경기는 모두 160명이 참가했다.

시범경기 결과 줄다리기는 송우초등학교가 1등, 추산초등학교가 2등, 왕방초등학교와 포천초등학교가 공동으로 3등을 차지했다. 3등이 두 학교인 것은 3, 4등을 가리는 경기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줄넘기는 왕방초등학교와 송우초등학교가 모두 20회를 넘어 공동으로 1등을 차지했고 추산초등학교와 포천초등학교가 공동 3등을 차지했다.

글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사진 지역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학생시범경기로 열린 학생 줄넘기에서 참가 학생들이 한번이라도 더 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줄다리기에 참가한 추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힘써 줄을 당기고 있다.



민속경기대회 진행요원이 송우초와 추산초의 결승경기 시작 신호를 알리고 있다.



'한번만 더~' 학생줄넘기에 참가한 학생들이 열심히 줄을 넣고 있다.



줄넘기 연습을 실시하는 참가학생들(上) 시범종목인 줄다리기에 참가해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下).